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9. 2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9/18~9/22)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 지속되며 상승 압력 나타났으나 수급상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우위 영향 등에 하락 전환. 이어 이란 동결자금 이슈 해소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지속 우려 및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 상승 전환
- 중반, 9월 FOMC 앞두고 경계심리 지속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따른 위안화 약세 영향 등에도 소폭 상승
- 후반 들어,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에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에 상승세 속 1340원대 재진입. 이어 9월 FOMC 영향 이어졌으나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및 중국 인민은행 환율 방어 조치에 따른 위안화 약세 제한 영향 속 하락 전환 후 1330원대 중반에서 마감

## 달러/원 전망

- FOMC 회의 이후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등이 지속된 가운데 PCE 물가지표 발표 등에 대한 경계감 등이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BOJ의 초완화 정책 고수에 따른 달러 강세 추세 유지 전망 등도 환율 상승 압력 요인으로 예상
- 반면, 추석 연휴전 주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확대 가능성 속 중국인민은행의 위안 약세에 대한 불편한 신호 등에 따른 위안화 추가 약세 제한 지속 가능성 등이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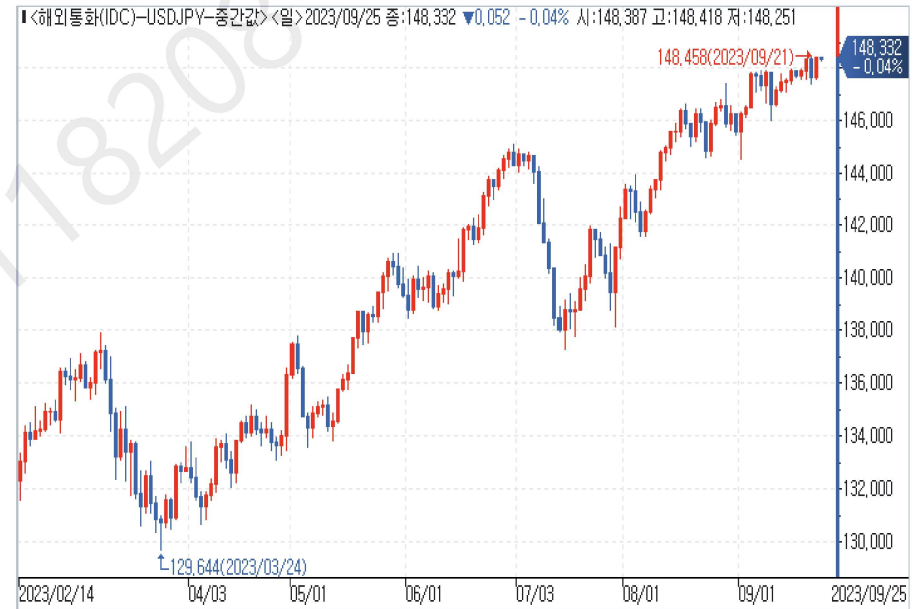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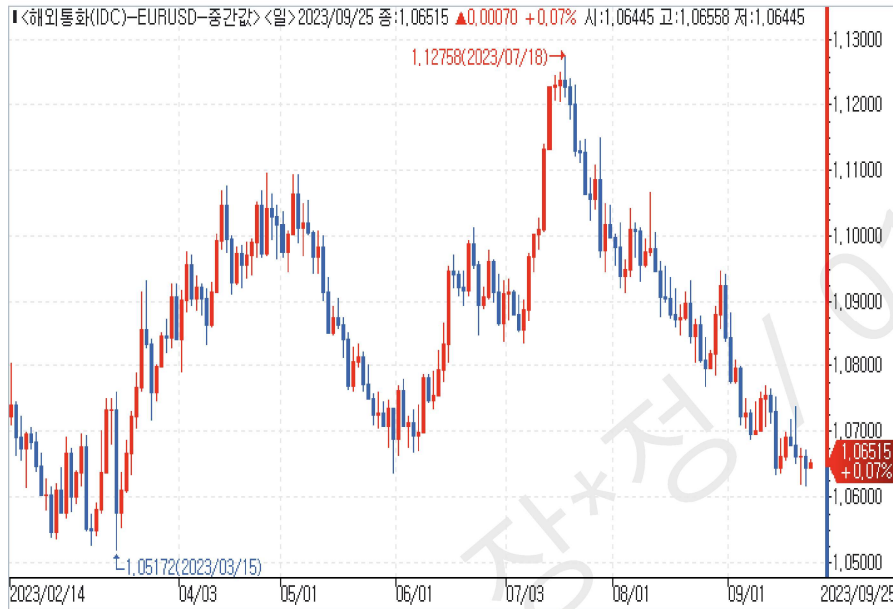
| 주간시가   | 주간고가   | 주간저가   | 주간종가   | 주간등락 |
|--------|--------|--------|--------|------|
| 1328.6 | 1342.2 | 1319.6 | 1336.8 | +8.2 |

## 예상거래범위

1,325원 ~ 1,340원



# 엔·유로화 동향 (9/18~9/22)



## 유로화 동향

- 주초, ECB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따른 유로화 약세 흐름 지속되는 가운데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의 매파 발언에 영향 받으며 달러 대비 강세. 이어 유로존 8월 CPI 완화에 의한 추가 인상 중단 기대감 재강화 및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 달러 강세 나타난 측면 반영되며 약세 전환
- 중반, 9월 FOMC에서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시사함에 따라 ECB의 완화적 스탠스와 대조되면서 유로화 약세 지속
- 후반 들어, ECB와 연준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로 유로화 약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유로화 가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이어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 발언으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지속되면서 유로화 약세 흐름 속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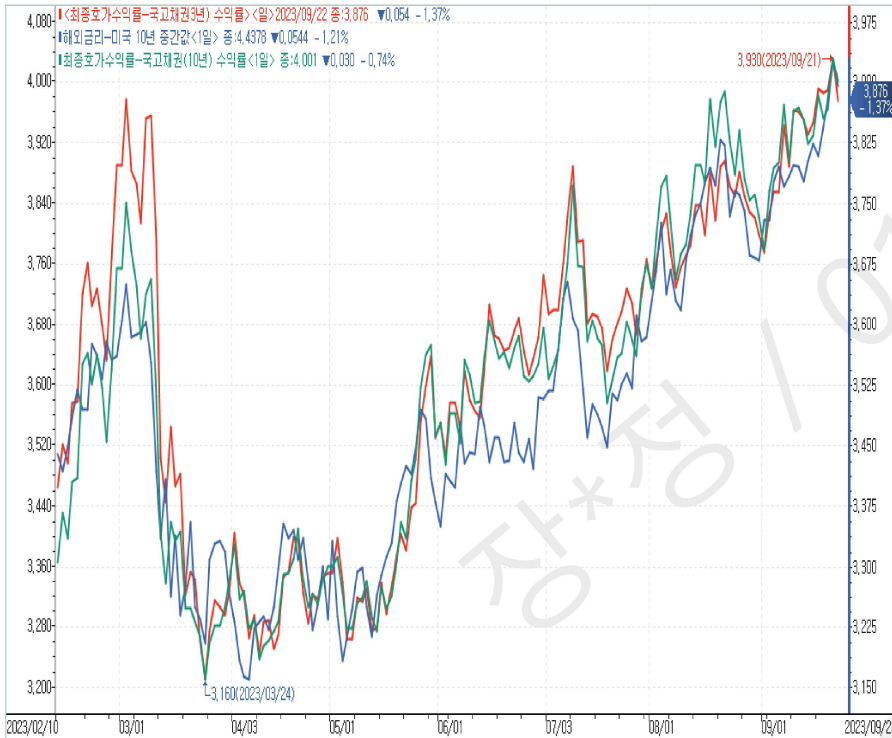
| 주간시가   | 주간고가   | 주간저가   | 주간종가   | 주간등락    |
|--------|--------|--------|--------|---------|
| 1.0661 | 1.0737 | 1.0615 | 1.0645 | -0.0016 |

## 엔화 동향

- 주초, BOJ의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엔화 약세 압력에도 9월 금융정책결정의 앞두고 정책 조정 기대감 등으로 추가 약세 제한되며 소폭 강세 출발. 이어 일본 당국과 열린 미 재무부 장관의 엔화 변동성에 대한 경계성 발언에도 연준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지속될 것이란 우려 재차 확대되며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9월 FOMC 결과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평가되면서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달러/엔 환율 148엔 상회하는 등 엔화 가치 급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유입과 일본 통화정책 회의 앞둔 경계감 등에 강세 전환. 이어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결정과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추가 완화책 실시 가능성 관련 발언 등에 연고점 경신하며 약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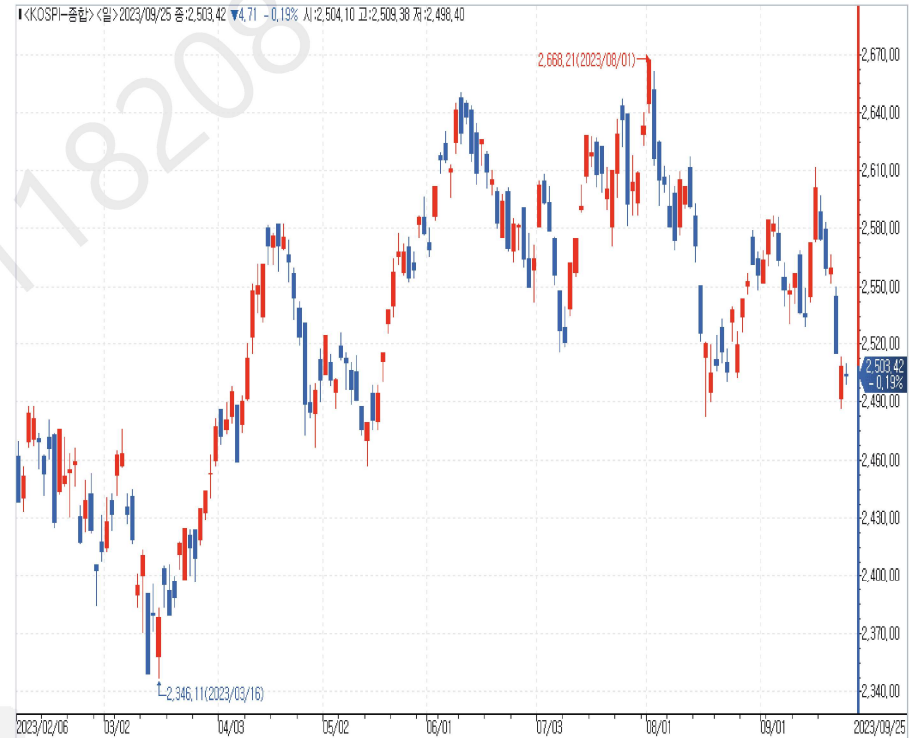
| 주간시가  | 주간고가  | 주간저가  | 주간종가  | 주간등락 |
|-------|-------|-------|-------|------|
| 147.9 | 148.4 | 147.3 | 148.4 | +0.5 |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18~9/22)



##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유가 영향이 이어지는 국면에서도 미 주택지표 부진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움직임도 연동
- 중반 들어, FOMC 결정을 앞두고 유가 상승 흐름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를 반영하며 소폭 상승 시현
- 후반 들어, FOMC 결과가 시장이 예상한 매파보다 강했다는 인식 속에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추세 유지후, 주 후반, 미 주간 실업 보험 청구건수가 8개월 만에 크게 감소한 가운데 FOMC 여진 이어진 영향 반영으로 상승 흐름 이어졌으나, BOI 금정위에서의 기존 정책 유지한 측면이 국고채시장 강세 재료로 인식되며 하락 전환하며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FOMC를 앞둔 경계감 확대 속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 부각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연속적인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며 투자심리 약세를 견인하였으나, FOMC 대기 모드 속에 보합권 흐름 시현
- 후반 들어, FOMC 결과가 매파적 강화 기조로 인식되면서 큰 폭 하락 전환한 가운데 주 후반, FOMC 여진 다소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상승 요인 등이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BOI의 통화 완화 정책 유지와 중국 증시 강세 등으로 낙폭 일부 만회하며 마감